

# 禪이 궁금하다고?



禪을 가까이 하라  
참회승 역음  
여시아문 17천원

올바른 공부법을 알지 못한다면 '깨달음'이라는 산을 제대로 오를 수 없다. 그러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8만4천 번문을 모두 찾아 읽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선지식의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다.

"참선 경험이 있는 자라도 그 공부를 점검한 다음, 진취가 있거나 그릇된 점이 있을 경우 공부 방법을 바꾸어 주거나 혹은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선지식의 역할이지요."

《禪을 가까이 하라》는 역사 조사들의 법어와 가르침을 엮은 선 수행 입문서다. <서장> <선가귀감> <선문촬요> <임제록> 등에서 선 수행을 시작하려는 초심자들이 지침으로 삼을만한 구절을 정리했다. 책을 엮은 스님은 범법 대신 '참회승'이란 필명을 내세웠다. "화두 참선에 관심을 가지고 정진하는 불자들이 공부를 하다 어려운 점을 질문할 때 마

다 틈틈이 정리해 두었던 역대 조사 스님들의 수시 법문(垂示法門) 자료를 간췌했습니다. 선서(禪書)를 찾아 읽거나 일일이 큰스님의 지도를 받기 어려운 재가 수행자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를 책으로 펴내게 됐습니다."

1장 '큰스님 참선 법문'에서는 참선 수행을 권하는 스님들의 법문을 담았다. 무상 선사의 '자기 부처', 성철 스님의 '자성을 깨치는 데는 화두참구가 가장 빠른 길이다', 서옹 스님의 '참사람' 등을 통해 왜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를 일러준다.

2장 '좌선의'에서는 중국 남송 휘종 때 자각 선사 가지는 <좌선의>를 통해 참선의 기본 법칙을 익히게 도와준다. 3장 '공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와 4장 '화두 공부하는 법'에서는 공안(公案)의 역할과 목적을 역대 조사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짚어준다. 5장 '올바른 화두 참구법'에서는 좌선 중 일어나는 경계와 그 대처법은 무엇인지를 일러준다. 즉 화두 참구 시 잠이 오거나 의식이 산란해 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음알이로 공안을 해석

하려 하거나 억지로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깨우쳤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짚어볼 수 있다.

6장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와 7장 '옛 큰스님들의 가르침'에서는 수행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담았다. "그들은 오직 이 도리를 참구하는 일만을 하라. 20년, 30년씩 참구해 보아도 깨닫는 바가 없다 내 목을 자르라"고 했던 조주종심 선사의 말에서 참스승의 소중함을

## 선사들의 가르침 엮은 선수행 입문서

### '서장' 등 대표 선서 주요 구절 정리

는 깨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8장 '참선자에게 주는 경책의 말씀'과 9장 '참선자에게 주는 계송 10수'는 수행자들의 공경을 풀어주고 수행을 독려하는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담았다. '옛사람의 공안에 현착하지 말라' '고요한 경계를 주의하라' 등 참선할 때 생길 수 있는 병통을 박산대의 스님이 자세한 설명을 통해 풀어준다. 수행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곁에 두고 수시로 읽으며 '선지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수행자에게 선지식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나침반이 된다. 사진은 남양주 봉선사에서 참선 수행을 하는 재가불자의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 새로 나온 책

■ <무엇이 깨달음인가>(수리 푼자 지음, 엘리 잭슨 베이 역음, 김병채 옮김, 수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1만원)=1990년 1월부터 91년 4월까지 수리 푼자와 제자들 사이에 오간 질문과 답변을 엮은 책. '무엇이 깨달음인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수리 푼자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98년 하남출판사에서 발간됐던 책을 김병채 교수(원광대)가 새롭게 다듬었다.



■ <종교가 사악해질 때>(찰스 킴블 지음, 김승욱 옮김, 예코리브르, 1만4천원)=절대 선(善)과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사악해질 때'는 언제일까? 찰스 킴블 교수(웨이크포리스트 대학 종교학)는 종교 타락의 다섯 가지 징후로 절대적 진리의 주장, 맹목적인 복종, '이상적 시대'의 확립,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의 정당화, 성전(聖戰) 선포를 꼽는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 <생명의 노래>(이철수 글/그림, 홍미, 2만8천원)=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느낌과 여백은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 목판화가 이철수씨의 판화작품들이 사랑받는 이유도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여유를 주기 때문인 것이다. <생명의 노래>는 2003~2004년 두 해 동안 새긴 판화 작품 중 66점을 골라 담은 책이다. 오강남 교수(캐나다 레지나 대학)가 판화 작품 속의 글을 영어로 옮겼다.



소풍 좋은 아이들  
최시선 지음  
아름다운인연  
1만원

## “애들아, 인도 사람들은 항상 웃고 있었어”

서 2500여년 전의 붓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행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던 최씨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여행하는 틈틈이 적어 두었던 일기와 <대당서역기> <왕오전축국전> <부처님의 생애> 같은 책들을 뒤적이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인도와 불교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 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렇게 한 달간의 집필 끝에 펴낸 <소풍 좋은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써내려간 '인도 안내서'가 됐다. 인도 여행 경험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왕성한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인도의 문화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줌으로써 인생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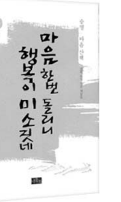
하지만 최씨는 "진정 인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먼저 당신 안에 있는 인도의 모든 것을 지우라"고 말한다. 인

들과 다양한 사진을 곁들였다. '신비의 땅 천축국'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고 절집에서 '불일'을 보는 등 청소년들이 궁금해 할 인도의 풍습과 문화를 소개한다. '깨침의 땅 보드 Gaya' '열반의 땅 쿠시나गर' 등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를 차례로 짚어보며 부처님의 발자취를 좇고 있다.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포교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불교 조계종이 수여하는 포교대상(청소년 부문)을 받기도 한 최씨는 현재 파라미타의 지도를 맡고 있다.



도라고 하면 무조건 못사는 나라, 손으로 밥을 먹는 미개한 나라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문화를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포교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불교 조계종이 수여하는 포교대상(청소년 부문)을 받기도 한 최씨는 현재 파라미타의 지도를 맡고 있다.



마음 한번 들리니  
행복이 미소짓네  
승명 지음  
너울북  
8천원

## 한 생각 바뀌 행복한 사람들

올해 70세의 강일승 할머니는 5년 전만해도 얼굴에 짜증과 고민이 가득했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여척같이 3남매를 키웠던 강 할머니는 외환위기 때 빌려준 2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해 화병까지 냈던 것이다. 그러나 '남은 인생동안 어떻게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갈지 생각하라'는 법문을 듣고 난 후 마음을 바꿔먹었다. 돈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 생각을 하지 말고 열심히 살기만 하라'고 격려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수행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각장 상륜심인당 승명 정사가 펴낸 <마음 한

번 들리니 행복이 미소짓네>에는 포교 현장에서 보고 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44편이 담겨 있다. 병마와 싸우거나 사업실패와 노름, 외박 등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이 '한 생각'을 고침으로써 '작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잔잔하게 들려준다. 승명 정사는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만족할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어려움을 보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글에 나오는 심인당(心印堂)이나 정사(正師), 불공(佛供) 등 진각종의 용어들을 주를 통해 풀어놓아 이해를 돕는다.



마음을 다스려  
나를 경영한다  
김정자리 지음  
물방자리  
9천5백원

## 화 날땀 참지 말고 풀자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은 아마 자신의 마음이 아닐까?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소설 <단>의 저자 김정리는 "화나 고통을 무조건 참지 말고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음 안에 한 번 쌓인 짜증과 고통은 참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다음에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 해소방법의 하나로 김씨는 '명상'을 제시한다.

김씨는 1995년부터 미얀마의 수행센터에서 직접 위파사나 수련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집중수련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을 소개한다.

### 제14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불교 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역경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많은 분을 발굴하여 시상 및 지원하고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과 불자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인재단으로 아래와 같이 제14회 행원문화상을 시상하고자 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상 내 용  |  | 인원 | 상금      |
|----------|--|----|---------|
| 학술 및 역경상 | 불교관련 학술연구에 큰 업적을 이룬 분 및 불전을 번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하신 분  | 2명 | 각 500만원 |
| 예술상      | 1. 불교사상을 토대로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분(사회부부 제외)<br>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하신 분 |    |         |

2. 시 상 일  
2005년 9월 23일 금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①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 1부  
② 이력서(명함판 사진 2매) ..... 1부  
③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실적물) ..... 1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중앙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 137-877)  
· 접수 마감 : 2005년 6월 30일  
·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5. 수상자 발표  
2005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 (☎ 02)586-6521~2번, fax 521-9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 行願文化財團  
理 事 長 朱 永 云

### 아무런 조건없이 병의 고통을 받는 여러 불자들에게 청정한 황토물 감로수(지장수)를 무료로 드립니다.

청정한 우리 사찰에서는 이해 못할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물영각과 백의관세음보살의 기도 가피 원력으로 마음병, 몸의병 (특히 위장병, 장병, 변비 같은 만성질환 등), 아토피 피부병 환자들이 왕림하셔서 정진기도와 감로수 물을 드시고 많이 좋아 지셨습니다.

청정 감로수 물(지장 水: 사찰내에서 부르는 이름)은 기도 중 백의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물로 많은 중생을 건지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본 사찰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황토물 지장수를 드려 줄 때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많은 불자들에게 지장수를 드려 병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겠다고 발원하셨습니다. 나쁜일을 지으면 인과응보를 받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치악산 포교당 연화정사는 자비의 마음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항상 선행을 행하며, 부처님 정법포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천안 방향을 타시고 성환역에 하차하시어 우신 1리 연화정사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치악산 상원사 포교당 연화정사  
041)588-7779, 010-6772-7485

### 명당을 만들어 주면 명이 바뀝니다 명당 육박방

이것이 첫방이다 명당육박방 051)865-9933

천도제 49제와 결별은 첫방법 전회주신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치방전용 명당육박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이 무리 현리구 노력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치방해 보십시오. 명당이 잡히면 명운, 명예, 사업, 재물이 옵니다.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치방을 해보십시오. 명당이 잡히면 명운, 명예, 사업, 재물이 옵니다. 명당이 잡히면 명운, 명예, 사업, 재물이 옵니다.

명당이 잡히면 명운, 명예, 사업, 재물이 옵니다. 명당이 잡히면 명운, 명예, 사업, 재물이 옵니다.